

# 한-인니, '특별 전략 동반자'로...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

핵심광물·AI·에너지·금융·해양 등 양해각서 포함 16건 협력 문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 간 각자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끌고 밀어주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광산을 유지하는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자동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면서 "성공적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경제협력 2.0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 성과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데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본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해양 분야

등 총 16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 중 양해각서(MOU)는 10건, 협력 문건은 6건이다.

일단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를 새로 체결했다. 그리고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를 체결해 2023년 7월 이후 지연되고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핵심광물, AI 정책 개발, AI 기본으로, 청정에너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지식재산 보호, 금융 등 분야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질조사와 탐사, 개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환경협력,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 산불 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 개발협력, 데이터 및 통계 협력 등에 관한 문건 6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김영환 컷오프' 제동 후폭풍... 국민의힘 공천 혼란 확산

## 법원,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인용 대구·충북 경선 재 실시 가능성 거론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들의 사퇴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과 법률자문위원인 규곡택 의원을 제외하고 공관위원 전원을 새로 꾸릴 방침이다.

현재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석인 경기·호남지역 후보 물색,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사진 왼쪽)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오른쪽)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그리고 컷오프 관련 잡음이 나는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후보 등록을 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

부지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바로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내정설'이 퍼

지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인 경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김 지사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대구시장 공천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컷오프했다. 만일 컷오프의 사유 및 절차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주 부의장도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 후보 등 6인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경선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과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 8인 경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 경선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2기 공관위가 대구·충북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천 잡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어제 김영환 지사(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만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전 위원장이 내면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당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고,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 강원 찾은 정청래, 우상호 지원사격

### "1호 공천자... 대통령이 보낸 사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강원도를 찾아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며 6·3 지방선거 '1호 단수공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는 강원도의 힘을 믿고 강원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위해 당에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며 "강원발전특별위원회인데 당대표 특별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라고 했다. 이어 "우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뒀든다 해드림 센터' 센터장을 또 제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저는 우 후보와 20~30년을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뛰 동지"라며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1일 강원 철원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다목적구장에서 열린 철원을 승격 제95주년 기념 '철원읍민 화합대축전'에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에 박덕흠 임명

### 재보선 공관위는 별도로 구성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1일 임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으로서 당내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 대표는 "가처분(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지만, 그것은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완전히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보선 공관위에 대해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체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